

5/ 나가노 동계올림픽과 지역의 다층적 국제화*

김희경



손님이 하나도 없는 하쿠바무라(白馬村)의 점프대

출처: <https://hangorin.tumblr.com/post/164283955146/220-21長野フィールドワーク報告>

김희경(金喜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보건교육 및 사회복지를 공부했고,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조교수다. 나가노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고령화라는 조건이 지역민들의 삶에 미치는 다층적 영향 및 다사사회(多死社会)로의 전환을 앞둔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생명과 죽음의 윤리적 지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내가 죽으면”: 초고령화 일본사회에서 생명정치와 죽음윤리」(2018), 「우바스테야마에서 건강장수도시로: 초고령화 시대의 지역활성화와 인구정치」(2017), 「중앙-지방의 관계동학과 지역성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 나가노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2017)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도 일본연구소 발원기금(위임기금-통보25)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https://doi.org/10.29154/ILBI.2020.23.144>

1. 들어가며

현대 일본사회에서 ‘지방’에 대한 논의는 일본을 균질하고 단일한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관점을 지양하고 그 내부에 존재하는 이질성과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¹ ‘지방’이라는 범주는 항상 도쿄로 상징되는 중심과 이항적 관계 속에 성립됐다. 지방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항상 ‘도쿄로 상징되는 중심 대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도쿄의 일극 집중화 현상에 기인한다. 고도성장기에 급속한 도시화·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에는 일자리가 넘쳐났고, 그중에서도 도쿄로 인구가 특히 많이 몰려들어 도쿄권의 과밀화가 심각해졌다. 특히 1964년의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도쿄에서는 도심 재개발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약 1조 엔의 예산이 투입되어 예산의 약 80%가 지하철과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교외와 도심을 잇는 교통 및 통신망의 정비에 투입되었다. 이에 따라 도쿄의 중추 관리기능이나 상업 기능은 더욱 강화됐다.²

돈과 사람, 상품이 모이는 장으로서 도쿄는 국제교류 기능마저 사실상 독점하게 됐고, 이에 지방에서는 다양한 문화전략을 통해 자본 또는 인구를 자신의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펼쳐야만 했다. 이에 일본의 지방 도시에서는 1970년대 이후 ‘고향’ 만들기, 내발적(内発的) 발전론, ‘지역’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전략을 펼쳤다. 고도경제성장기가 끝난 후,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서 일본사회의 가치관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지방은 잃어버린 일본을 발견하고 추억하며, 사회심리적 불안감을 달래는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1980년대 중앙정부의 일련의 문화 행정에서 고향의 생산과 소비는 적극적으로 장려되었으며, 지자체는 성심성의껏 전통의 고안에 몰두하였다. ‘고향’(ふるさと)은 지방도시가 제시하는 문화전략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다.³

1 김효진, 「중앙과 주변, 소멸과 재생의 이분법을 넘어서」, 『일본비평』 16, 2017, 4~21쪽.

2 정현숙, 「지역사회와 지역개발」, 『현대 일본사회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89~90쪽.

3 조아라, 「일본 지방도시의 문화전략과 ‘지역다움’의 논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5), 2008,

급격한 도시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실한 ‘낭만적 과거’를 지방에서 찾고자 하는 도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실시된 ‘고향 만들기’ 프로젝트의 정점은 ‘리조트법’(종합 보양지 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표출된다. 1987년 가을에 통과된 리조트 법안은 기본적으로 보조금이나 세금 등의 우대를 제공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립공원이라든가 수림보호지구 등과 같이 과거에는 사기업에 의한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대규모 리조트 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었다. ‘리조트법’은 다나카 전 총리의 ‘일본열도 개조론’ 때보다 더 활발한 전 국가적 개발 붐을 일으켰다.⁴ 계속적인 인구 과소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이제 리조트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논의가 귀결되곤 했다.⁵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나가노(長野) 지역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비켜 설 수 없었다. 나가노에서는 1986년 7월 4일에 올림픽 유치위원회를 설치하여 홋카이도 아사히카와(旭川), 이와테현 모리오카(盛岡), 야마가타현 야마가타(山形)와 함께 경쟁했다. 경쟁 당시, 시바타 가쓰지(柴田勝治)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JOC) 위원장이 이와테현 출신이며, 쓰쓰미 요시아키(堤義明) 전일본스키연맹 회장 역시 이와테현에 스키장과 호텔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리오카가 개최지로 유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가로도 유명한 재력가 쓰쓰미 요시아키는 나가노현 시가고원 일대로 부동산 투자를 확장할 목적으로 나가노 지역이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⁶ 최종적으로 나가노시는 총 45명의 올림픽 위원들 가운데 34표를 얻어 압도적 표차로 올림픽 후보지로 결정됐다.⁷ 이후 1991년 6월 15일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제97회 국제 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정식으로 1998년 나가

480~491쪽.

4 권숙인, 『현대 일본사회와 지방의 아이덴티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144쪽.

5 권숙인, 『현대 일본사회와 지방의 아이덴티티』, 146쪽.

6 等々力賢治, 「長野冬季オリンピックにみる巨大地域開発: その特徴と問題点」, 『竜谷法学』 31(2), 1998, 207쪽.

7 横内房寿, 国内候補都市に: 全員投票を強く要望, 圧倒的多数で決定, 『週刊長野』, <http://weekly-nagano.main.jp/2013/11/03-38.html>(최종 검색일: 2020. 5. 13.).

노 올림픽의 개최가 결정됐다.⁸ 이처럼 나가노 올림픽은 리조트 개발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꾀하던 시대 배경 속에서 추진됐다.

전국 방방곡곡 리조트 개발의 바람이 몰아치던 시기에 후쿠시마현 오지 지역인 아이즈(会津) 지방에서 현장 연구를 실시했던 권숙인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은 ‘지역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획일적 리조트 개발을 강행하는 시도들에 대해 무조건 순응하지는 않았다. 한편으로는 개발을 멈춘 후루사토로 남아 있을 수 없으니 리조트라도 개발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주민들은 획일적인 지역 이미지를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정체성을 끊임없이 모색하며 지역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가기도 했다.⁹ 즉, 지역 내부에서도 지역개발의 진행 방식을 두고 상이한 견해를 가진 지역민들 간의 경합이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나가노현 연구는 이러한 지역주민들 간의 경합에 주목하기보다는 주로 마을 만들기 실천을 통해 주민자치의 실현을 공고히 하는 측면에만 주목해 왔다.¹⁰ 또한, 나가노 올림픽에 대해 다룬 연구들 역시 나가노 동계올림픽 개최 후 관련시설의 이용 현황 및 과제를 지적한 연구들만 일부 이뤄져 올림픽을 둘러싼 지역 내부에서의 역동을 총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다.¹¹

필자는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나가노의 지역성이 도쿄로 상징되는 중앙과 지방의 마주침을 통해 생산 및 구성되는 역동적인 측면에 주목한 바 있다.¹² 즉, 지역성은 “자연스럽게 형성되거나 원래부터 존재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나가노 지역을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하려는 다양한 시도와 이에 대응하는 지역주민들 간의 대화가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구성되

8 야스모토 아츠코, 「메가스포르츠이벤트의 개최 후 관광자원화에 관한 연구: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을 사례로」, 『제76차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연구논문 발표대회』, 2014, 509쪽.

9 권숙인, 『현대 일본사회와 지방의 아이덴티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10 김용련, 「마을 공동체 구축을 위한 주민자치 실천 사례 연구: 나가노현 아치무라 주민자치 활동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70, 2016, 7~28쪽, 박동성, 「일본 나가노현 노자와온센 지역의 온천공유자원 관리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50(3), 2017, 175~205쪽.

11 야스모토 아츠코, 「메가스포르츠이벤트의 개최 후 관광자원화에 관한 연구: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을 사례로」, 506쪽.

12 김희경, 「중앙-지방의 관계동학과 지역성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 나가노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비평』 16, 2017, 117~121쪽.

는 역사적 산물”임을 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역시 ‘중앙=도쿄’로 한정하여 설명함으로써 일본의 지방이 마주해 왔던 글로벌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도쿄 대 지방이라는 구도로서만 지역의 상황을 설명하게 되면 글로벌 경제체제하에 심화하는 지역권 내 격차의 문제 등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¹³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올림픽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질문하는 것에서 한발 나아가 지역개발의 통시적 맥락 속에서 메가스포르츠 이벤트¹⁴가 지역주민들의 삶에 미친 포괄적 영향을 검토한다. 그리하여 기존의 논의에서 간과되어 왔던 지역 내부의 다층적 층위를 드러내는 한편, 글로벌 맥락에서 지역성이 구성되는 측면을 규명한다. 이를 위해 본 논고는 우선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로 인해 지역사회가 직면하게 되는 변화를 경제적, 공간적, 환경적 차원에서 고찰한다. 둘째, 지역주민들은 국가적 퍼포먼스이자 대규모 국제행사인 올림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올림픽 이후의 지역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고찰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자는 나가노 올림픽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비롯하여 관련 문헌, 신문 기사, 인터넷 자료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전화 인터뷰를 수행하여 올림픽 전후의 지역 상황을 파악했다.

2. 나가노 올림픽과 지역사회의 변용

1) 경제적 측면

나가노 올림픽은, 1964년 도쿄 올림픽, 1972년 삿포로 동계올림픽에 이어

13 남상욱, 「현대 일본의 ‘지방’ 내러티브의 가능성과 한계: 요시다 슈이치 『악인』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66, 2018, 34~38쪽.

14 이 글에서 메가 이벤트는 “스포츠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국가 및 지역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국제행사”라 정의한 야스모토 아츠코의 정의를 따른다. 야스모토 아츠코, 「메가스포르츠 이벤트의 개최 후 관광자원화에 관한 연구: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을 사례로」, 504쪽.

〈표 1〉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 개요

항목	내용
개최기간	1998년 2월 7일~22일까지(총 16일간)
개최지	나가노시, 야마노우치마치, 하쿠바무라, 가루이자와마치, 노자와온센무라
운영주체	나가노 올림픽 동계경기대회 조직위원회(NAOC)
참가국/선수, 임원 수	72개 국가 및 지역(NOC), 선수 2,305명, 임원 2,333명
실시경기	7경기 68종목
보도관계자(8,329명)	E 카테고리(신문, 잡지 등) 2,586명, RT 카테고리(방송권자) 5,743명
대회 운영요원 (44,066명)	NAOC사무국 995명, ORTO 98요원 2,919명, 경기임원 3,570명, 개최 지자체 직원 1,834명, 자위대 2,169명, 자원봉사자 3만 2,579명
관객 수 (144만 2,792명)	경기 127만 5,529명, 시상식 16만 7,200명
대회운영비	1,142억 엔, 나가노올림픽 기념 기금 46억 엔

출처: 야스모토 아츠코, 「메가스포츠이벤트의 개최 후 관광자원화에 관한 연구: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을 사례로」, 509쪽.

서 세 번째 올림픽이었다. 〈표 1〉에 정리된 것처럼, 1998년 2월 7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 중, 주최 도시인 나가노시를 중심으로 현 내 5개 시정촌(市町村)인 나가노시(長野市), 야마노우치마치(山ノ内町), 가루이자와마치(軽井沢町), 하쿠바무라(白馬村), 노자와온천무라(野沢温泉村)에서 7개 경기 68개 종목이 치러졌다. 참가국은 72개국으로 당시까지만 해도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였으며, 4,638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했다. 대회기간 중 참가자는 경기 참가자가 약 127만 6,000명, 그 외 참가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약 230만 명에 이르러,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관객 동원수인 225만 명을 웃돌았다. 올림픽 종료 후에는 장애인의 스포츠 제전인 나가노 패럴림픽(paralympics)도 개최됐다.¹⁵

나가노 올림픽은 일본경제가 버블기에 접어들던 1980년대 후반에 유치가 계획되어, 1991년 유치가 실현됐다. 버블 붕괴로 일본경제가 급격히 하강하는 가운데 대회 추진을 위해 각종 예산이 투입되고, 각종 건축 산업이

15 도키 히로시, 「스포츠와 지역진흥: 나가노 동계올림픽의 경우」, 『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2004, 705쪽; 이상대·지우석·이수진·박신영,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연계한 지역상생 발전방안」, 『정책연구』, 2011, 24쪽.

〈표 2〉 나가노올림픽 관련 사업 (단위: 억 엔)

직접 경비	대회운영비	1,142
	시설정비비	1,363
	경기시설	(854)
	운영시설	(509)
간접 경비	올림픽 관련 도로 정비비	1,980
	고속교통망 정비비	10,930
	호쿠리쿠 신칸센 (다카사키高崎-나가노)	(4,461)
	나가노 자동차도로 (豊科-更埴)	(2,079)
	조신에쓰 자동차도로	(4,390)
합계(단위: 억 엔)		15,415

출처: 石坂友司・徐禎完, 「長野オリンピックが生み出した遺産」, 『한림일본학』 33, 2018, 183쪽.

성황을 이루면서 “나가노는 잃어버린 10년을 비껴갔다.”라고 말해지기도 했다.¹⁶ 또한 나가노 올림픽에서 일본은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며 성공적인 대회로 일컬어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나가노 올림픽은 ‘흑자를 낳은 올림픽’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이시카와 유지는 나가노대회에서 발생한 흑자는 정부가 지출한 보조금 액수와 동일하고, 세금의 명목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 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¹⁷ 나가노 올림픽의 관련 사업비 및 나가노 올림픽 대회운영비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대회 운영비를 보면 직접경비 가운데 대회 운영비 1,142억 엔, 시설 정비비 1,363억 엔으로 총계 2,505억 엔이 소요됐다. 간접경비 소요 내역을 살펴보면, 올림픽 관련 도로 정비비가 1,980억 엔, 고속교통망 정비비 1조 930억 엔으로 간접경비는 총계 1조 2,910억 엔이 지출됐다. 또한 신칸센 및 고속도로, 자동차 도로 건설에 포함된 간접경비 및 경기시설, 운영시설 등에 대한 정부 투자가 있었다. 이러한 비용을 모

16 石坂友司・松林秀樹, 「オリンピックとスポーツメガイベントの社会学」, 『「オリンピックの遺産」の社会学』, 青弓社, 2013, 7쪽.

17 石坂友司・松林秀樹, 「オリンピックとスポーツメガイベントの社会学」, 7쪽.

두 합산하면 1조 5,415억 엔에 달한다. 이처럼 올림픽 대회 자체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보다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제반 시설 정비에 드는 비용이 훨씬 막대했다.

나가노 올림픽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경우, 올림픽 관련 사업비에 교통비, 숙박비, 쇼핑비 등을 포함하여 소비 활성화, 이전가옥 신축 효과 등을 포함하여 초기 투자액 1조 6,512억 엔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인원, 물자의 신속한 수송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신칸센, 고속도로의 건설 비용이 70%를 차지해 현내 경제에 미친 영향이 컸다. 올림픽 개최 이후 국내에서의 생산유발액은 4조 6,803억 엔(파급 비율은 2.83배)이며 나가노현 내에서의 생산유발액은 2조 4,548억 엔(파급 비율은 1.49배)으로 추산된다. 나가노현의 경우 버블경제 붕괴 후 1993년까지는 전국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지만, 1994~1996년도에는 전국의 성장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 따라서 나가노 올림픽 관련의 공공투자가 나가노현의 경제를 밑바닥에서 끌어올리는 요인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¹⁸ 다만, 경제적 파급효과의 경우 그것이 올림픽에 영향이라 볼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대회 이후 경제적 파급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는 않았다.¹⁹

〈표 3〉에 제시된 나가노 대회 운영비의 수지 내역을 살펴보면, 텔레비전 방영권 및 스폰서 수입 등이 774억 엔과 현 및 시로부터의 운영보조금 50억 엔으로 계상됐다. 특히, 50억 엔은 대회 흑자로 이야기되지만, 실제로는 현 및 시에서 세금이 투입된 금액이라 세금에 의한 보전이지 순수한 흑자가 아니다.

무엇보다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개최 도시의 재정적 부담이 막대하게 증가했다. 나가노시에서는 경기시설 건설비 및 운영시설 건설비, 올림픽 관련 도로사업비로 1조 5,415억 엔의 돈을 소요했다. 올림픽 유치 결정 이후 1992년부터 5년간 일반회계 규모는 이전 5년간의 2배 가까이 늘었다. 건물

18 도키 히로시, 「스포츠와 지역진흥: 나가노 동계올림픽의 경우」, 706쪽.

19 石坂友司, 『現代オリンピックの発展と危機 1940~2020』, 人文書院, 2018, 156쪽.

〈표 3〉 나가노 올림픽 대회운영비

(단위: 억 엔)

수입		지출	
사업비(TV 방송권, 스폰서 수입 등)	774	관리비(인건비 등)	141
현 및 시로부터 운영비 보조	50	사업비(경기·회장운영비, 홍보보도비 등)	1,000
기타(개최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등)	318	정산사무비	1
합계	1,142	합계	1,142

출처: 信濃毎日新聞, 1999년 3월 1일자. 石坂友司·徐禎完, 「長野オリンピックが生み出した遺産」, 183쪽 재인용.

이나 도로 등을 만드는 보통건설 사업비에 불과 5년 동안 14년치 규모의 지출을 하였다. 도시기반 정비는 수십 년간 집행해야 할 개발을 미리 달성한 것이라 하지만, 통상의 재정규모를 넘은 투자는 재정 파탄의 위험성을 떠안는 것이었다. 채권을 발행하면서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추가됨에 따라, 올림픽 유치에 따른 지역의 재정 부담은 매우 커졌다.²⁰

나가노시의 부채 잔고의 추이를 올림픽 전후로 보면, 올림픽 개최를 결정하던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626억 엔 정도 되던 시의 채무는 올림픽 개최 직전인 1997년에는 1,925억 엔을 정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시의 설명에 따르면 올림픽 개최를 위해 빌린 돈(기채)은 2017년에 상환 완료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세목을 바꿨을 뿐이었다. 게다가 나가노시의 재정상황을 경상수지비율에서 보면 올림픽 유치를 경험한 이후로 재정이 많이 경직되었다. 빌린 돈을 변제하는 데 수십 년을 낭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나가노 대회를 '성공한 대회'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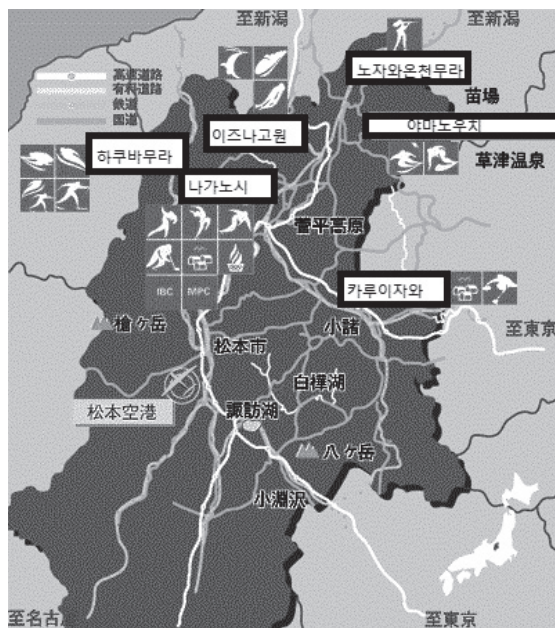
나가노 올림픽은 나가노시를 중심으로 5개 시정촌(나가노시, 야마노우치마치, 가루이자와, 하쿠바무라, 노자와온천무라)에서 개최됐으며, 주요 경기장은 나가노시에 집중되어 있다(〈그림 1〉, 〈표 4〉 참조). 나가노 올림픽을 계획하던 당시에는 대회 개최로 인한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새로운 개발을 피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새롭게 6개의 경기장과 3개의 올림픽 관련 시설을

20 도키 히로시, 「스포츠와 지역진흥: 나가노 동계올림픽의 경우」, 708~709쪽.

21 石坂友司, 『現代オリンピックの発展と危機 1940~2020』, 154쪽.

〈표 4〉 시정촌별 올림픽 경기장 및 관련시설

시정촌	건물명	개최경기
나가노시	나가노올림픽 스타디움	개폐화식 장소
	M-wave	스피드 스케이팅
	Big Hat	아이스 하키남자
	Aqua Wing	아이스 하키여자
	화이트 링	피겨 스케이팅 쇼트트랙 회장
	스파이럴	봅슬레이 루지
	선수촌	
	메인프레스 센터	
	미디어촌(2개소)	
하쿠바무라	스노하프	크로스컨트리
	점프경기장	점프
	八方尾根 스키장	알펜스키
야마노우치마치	焼額山・東館山스키장	알펜스키
	かんばやし 스노보드 パーク	스노우보드
노자와 온천마치	바이아슬론 회장	바이아슬론
가루이자와	風越 공원 아리나	컬링



〈그림 1〉 나가노 올림픽 경기장 위치

출처: <https://www.joc.or.jp/games/olympic/nagano/map/>(최종 검색일: 2020. 3. 28.)

건설했다.

〈나가노 올림픽 스타디움〉은 올림픽 개최 당시에는 개폐회식이 열리던 장소로 개최 이후 야구장으로 쓰일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시민문화홀, 야구장, 미나미 나가노 운동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림픽 폐장 이후에도 비교적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설은 〈M-wave〉와 〈Big Hat〉로 동계에는 스케이트 링크로, 다른 계절에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장으로 활용됐던 〈Aqua Wing〉은 실내 폴로 개조하여 시민 수영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피겨 스케이트와 쇼트트랙 경기가 이뤄졌던 〈화이트링〉은 종합체육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봅슬레이와 루지 경기를 개최했던 〈스파이럴〉은 경기 대회나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었지만, 고액의 유지관리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표 5〉 참고). 홋카이도가 동계올림픽 후보지로 거론되는 중, 경기시설을 새롭게 짓지 않고 나가노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져 일단 2017년도부터 휴지(休止) 조치가 이뤄졌다.

나가노시에서는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에도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을 이용하여 활발하게 동계스포츠 관련 대회나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사는 〈M-wave〉와 〈Big Hat〉에서 주로 겨울에 집중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 나가노시에서는 올림픽 경기시설을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자원 및 지역 시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었다. 나가노시에서는 ‘나가노시 종합계획 실시계획’ 등을 설립하여, 올림픽 개최 도시로서의 인지도와 경기 및 숙박 시설 등의 자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컨벤션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관광과 연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나가노시에서 개최한 국제회의 건수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²²

올림픽 개최 경험을 기반으로 컨벤션 및 국제회의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22 야스모토 아츠코, 「메가스포르츠이벤트의 개최 후 관광자원화에 관한 연구: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을 사례로」, 513쪽.

〈표 5〉 나가노시 경기시설 관리운영비

구분	Big Hat	엠 웨이브	화이트 링	아쿠아 윙	올림픽 스타디움	스파이럴
건설비 (억 엔)	191	348	142	91	106	101
세입 (1,000엔)(A)	36	107,904	108	220,661	7,690	102,177
세출 (1,000엔)(B)	182,193	425,108	115,082	482,033	199,628	203,432
일반재원부담 (1,000엔)(B)－(A)	182,157	317,204	114,974	261,372	191,938	101,255

출처: 石坂友司・徐禎完, 「長野オリンピックが生み出した遺産」, 『平成26年度包括外部監査の結果に関する報告書』, 185쪽

이행함으로써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려던 노력이 충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함에 따라 시설 운영 및 유지비는 올림픽 개최 이후에도 지속해서 지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표 5〉에 정리된 나가노시 경기 시설 관리·운영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경기시설은 건립 당시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유지관리비에서도 많은 비용이 필요하여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나가노시의 모든 주민들은 올림픽 유치에 반대했더라도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 게다가, 시설이 노후화되어 수선 및 개축하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도 든다.²³ 특히, 〈스파이럴〉과 같은 루지 및 봅슬레이 경기장의 경우,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경기장을 이용하는 인구가 100여 명에 지나지 않지만,²⁴ 연간 2억 2,000만 엔의 유지 관리비가 든다. 이에 나가노시에서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에 제방을 중단했다.²⁵ 개최 당시에는 ‘지역 활성화’라는 대의명분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고 충분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나가노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 및 파급효과를 다룬 연구들을

23 石坂友司・徐禎完, 「長野オリンピックが生み出した遺産」, 184쪽.

24 等々力賢治, 「長野冬季オリンピックにみる巨大地域開発: その特徴と問題点」, 212쪽.

25 大野拓生, 「長野, 五輪招致の札幌市, 「スパイラル」活用を要請」, 『朝日新聞』, 2019. 8. 1.
<https://www.asahi.com/articles/ASM7Z447XM7ZUOOB00C.html>(최종 검색일: 2020. 4. 2.).

살펴보았다. 나가노 올림픽은 개최 당시만 하더라도 ‘버블[붕괴]이 비껴갈 정도로’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나가노시에서는 올림픽 개최도시의 명성을 기반으로 각종 국제회의 및 컨벤션을 개최하는 등의 국제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꾀했지만 뚜렷한 결실을 보지는 못했다. 또한, 올림픽 관련 시설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 역시 잔존하고 있다.

종합하면, 메가 이벤트가 지역에 미친 영향을 논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관련 시설들이 집중된 나가노시의 상황에 주목하고 있어, 다른 지역들에서는 올림픽 개최 이후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올림픽 개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

2) 공간적 측면

나가노 지역주민들이 나가노 올림픽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2009년 10월부터 11월까지 나가노 대회 경기시설이 중축된 나가노시, 가루이자와마치, 미요타마치, 야마노우치마치, 하쿠바무라 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올림픽을 나가노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전체 74.0%이었다. 찬성의 이유 가운데 ‘교통망 정비가 진행돼서’가 65.5%로 가장 높았고, ‘지역이 활성화돼서’가 46.6%, ‘지역의 지명도가 높아지기 때문에’가 40.1%, ‘얻기 어려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32.9%,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어서’ 19.9%, ‘새로운 경기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11.5%, ‘주변 사람들이 찬성하니까’ 1.5%로 나타났다.²⁶ 즉, 올림픽 자체보다도 교통망 정비와 같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이 활성화될 것이라 하는 기대가 더 높았다.

올림픽 및 만국박람회 같은 메가 이벤트의 경우, 상위의 행정주체(도도부

26 松林秀樹·石坂友司, 「記憶と評価から見た遺産」, 『オリンピックの遺産の社会学』, 青弓社, 2013, 64~68쪽.

현 및 국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원조(재정적 원조 및 도시계획, 개발촉진 예산 배정)를 받아 고규격 신칸센 도로(高規格幹線道路)를 건설할 수 있다. 고규격 신칸센 도로는 일반 자동차 전용 도로와 혼슈·시코쿠 연락도로 등 전국적 자동차 교통망과 연결되어 있으며 고속으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전용 도로이다. 고규격 신칸센 교통망은 ‘수요추수형’(需要追隨型)과 ‘개발투자형’(開發投資型) 두 가지로 나뉜다.

수요추수형은 도카이도 신칸센(東海道新幹線) 및 도메이 고속도로(東名高速道路)가 대표적으로 고도성장기에 태평양 벨트 지대의 수요급증과 유출능력 포화를 감당하기 위해 지어진 고속도로로 정비의 긴급도 및 우선순위가 높다. 반면, ‘개발투자형’ 고속도로는 안정 성장 이후 건설된 교통망으로 지역개발 및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건설됐다. 나가노 신칸센과 조신에쓰(上信越) 고속도로는 일상적 교통편의보다도 관광을 중심으로 한 비일상적 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 투자형 고속도로였다. 하지만, 실제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신칸센 이용의 약 60%가 통근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관광수요보다도 통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²⁷

올림픽을 계기로 시행한 교통망 정비 작업에 나가노현 주민들 모두가 만족하지는 않았다. 특히, 하쿠바무라는 올림픽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주민들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하쿠바무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림픽 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올림픽 실시 이전에는 반대 비율이 10.9%에 불과했지만, 개최 이후 반대비율이 28.8%로 올림픽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목소리가 크게 늘었다.²⁸ 하쿠바무라에서는 스노하프, 점프, 알펜스키 등 세 종목의 경기만을 치러서 나가노시만큼 많은 시설을 건립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재정적 부담도 덜했다. 그런데도 올림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인지 고찰해 보겠다.

하쿠바무라의 경우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겨울 리조트를 성장의 주

27 松林秀樹, 「遺産に対する地元の評価意識: 交通網整備を中心に」, 『「オリンピックの遺産」の社会学』, 青弓社, 2013, 99쪽.

28 松林秀樹·石坂友司, 「記憶と評価から見た遺産」, 66~67쪽.

된 거점으로 삼는 도시로 성장했다. 1990년대 초까지는 고도경제성장과 함께 270만 명을 넘어선 스키장 이용인구로 인해 번성했지만, 버블[붕괴]과 함께 스키장 이용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올림픽 유치 및 개발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 특히 1980년대부터 자가용으로 관광지를 방문하는 방식이 본격화되면서 도로망 정비가 관광산업 부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주민들은 기대했다. 나가노시가 올림픽 후보 도시로 결정되면서 하쿠바무라에서는 나가노시와 하쿠바무라를 잇는 국도 148호선 확장공사를 추진했고,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6개의 터널과 바이패스(우회로)가 신설됐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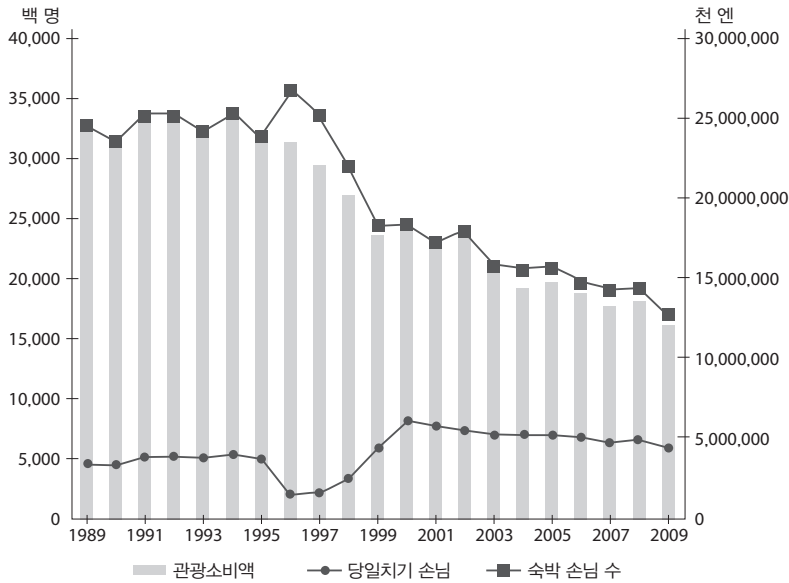
하지만 올림픽 이후 “올림픽 효과를 경제적으로 따져 본다면 역효과가 발생했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주민들이 증가했다. 국도 148호선을 정비하면서 하쿠바무라 바깥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의 수가 2배 이상 증가했고, 하쿠바무라 내 학교가 아닌 나가노시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수도 증가했다. 또한, 의료품, 소지품, 문화 관련 상품을 나가노시에서 사는 하쿠바 주민들의 수가 증가했다.³⁰ 즉, 나가노시와 연결되는 도로를 정비함에 따라 하쿠바무라 내 상권이 오히려 쇠락하고 나가노시 상권이 더욱 커지는 이른바 “빨대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³¹ 교육 및 소비 영역에서 선택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이러한 변화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가져왔다.

올림픽 개최 당시에는 “하쿠바무라 내 스키장에는 선수들이 연습 및 합숙을 하고 있다”는 소문으로 인해 스키장을 찾는 손님들의 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피해를 겪기도 했다. 올림픽 이후 점프 경기장을 찾는 일반 관광객 수가 증가하기는 했다. 하지만, <그림 2>에서 보듯이, 국도 148호선을 정비하면서 관광으로 인한 수입은 크게 줄었다. 하쿠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나가노시를 거점으로 하는 관광객은 하쿠바 지역까지 한 시간이

29 高尾将幸, 「遺産をめぐる葛藤と活用: 白馬村の観光産業を中心に」, 『「オリンピックの遺産」の社会学』, 青弓社, 2013, 154~157쪽.

30 高尾将幸, 「遺産をめぐる葛藤と活用: 白馬村の観光産業を中心に」, 157쪽.

31 권숙인, 『현대 일본사회와 지방의 아이덴티티』, 133쪽.



〈그림 2〉 당일치기 손님과 숙박 손님, 관광소비액의 추이

출처: 나가노현관광부관광기획과 『관광지이용자통계조사결과』 각 연도 작성; 高尾将幸, 「遺産をめぐる葛藤と活用: 白馬村の観光産業を中心に」, 156쪽.

면 다녀올 수 있어서 굳이 하쿠바 지역에서 숙박하지 않았다. 게다가 동계 스키보다 여름의 그린 투어리즘이 선호되는 경향으로 인해 스키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자 했던 주민들의 기대는 이뤄질 수 없었다. 그래서 올림픽 호황을 기대하며 많은 돈을 빌려 숙박시설을 지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폐업하고 말았다.

하쿠바 지역의 경우, 올림픽 이후 외국인 손님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이 경영하는 숙박시설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하쿠바마치 관광지 경영 계획 제5회 책정위원회 사전 송부 자료에 따르면, 펜션 등을 포함해 전체 숙박시설에서 외국인 경영자의 비율이 30% 정도로 관광시장에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다.³² 하쿠바 지역에서 료칸을 경영하는 와타나베 씨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하쿠바무라 내 와다노구(和田野区)의 경우,

32 石坂友司·徐禎完, 「長野オリンピックが生み出した遺産」, 189쪽.

외국인 운영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구에서 시민들에게 안내장을 배포할 때도, 영어와 일본어를 병기하는 것이 관례화되고 있다.

이는 메가 이벤트를 통해 달성한 국제화의 성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스키장을 공동으로 관리 및 소유하는 방식에 익숙해 있던 일부 토착 지역민들에게는 ‘외부로 자본이 유출되어 버리는 위협’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외국인 사업자들은 폐업 이후 시설의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떠나 버려 성토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또한, 심야에 외출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불안해하는 지역주민들도 늘었다. 외국어로 쓰인 관광지도 및 버스 투어 노선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자원이 적극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지역민들이 자율적으로 내부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³³

반면, 고속 신칸센 건설로 수도권과 좀 더 가까워진 사례도 있다. 가루이자와마치는 본래 유력가들의 별장들이 몰려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별장지로부터 확보된 고정자산세 수입으로, 전국적으로 보아도 재정이 탄탄한 지자체에 속한다. 나가노 올림픽을 계기로 신칸센이 개통하면서 도쿄로부터 약 1시간 정도면 다녀올 수 있는 곳이 되면서 더욱 호황을 누렸다.³⁴ 또한, 가루이자와마치는 인접한 미요타마치와 함께 각각 컬링 경기장을 세웠다. 2010년에는 “가루이자와마치를 일본 컬링 성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가루이자와 컬링 활성화 프로젝트”를 발족했다. 2013년에는 여름에는 수영을, 겨울에는 컬링을 할 수 있는 아이스 파크가 건설되면서 이용자 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³⁵

하계 올림픽 대회는 도쿄, 런던,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지만, 동계 대회는 알파인(alpine) 환경을 구축할 필요 때문에 지역의 ‘소도시’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의 소도시에서는 국제적 중요성을 지닌 대규모의 문화 이벤트”인 메가 이벤트를 개최하여 국제적인 지명도를

33 高尾将幸, 「遺産をめぐる葛藤と活用: 白馬村の観光産業を中心に」, 160~164쪽.

34 石坂友司·徐禎完, 「長野オリンピックが生み出した遺産」, 186쪽.

35 間野義之, 『オリンピックレガシーが生んだカーリングの町・軽井沢』, 徳間書店, 2019, 87~88쪽.

높이고 인프라 변화를 확보하여 지방도시의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올림픽 유치는 한편으로는 인바운드(inbound) 관광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제 관광 시장의 점유를 목표로 하는 지역의 글로벌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³⁶

가루이자와마치와 나가노시는 올림픽 유치의 목적대로 인바운드 관광을 어느 정도 끌어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기대했던 만큼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게다가, 지역 활성화의 근간이 될 거라 믿었던 교통망 구축으로 인해 소비상권이 변화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불황을 경험하기도 했다. 메가 이벤트를 통해 지역에 흘러들어 온 다국적 자본은 주변 경제와 무관하게 세계 경제 중심부와 선택적으로 연결된 지역에만 집중됨으로써 새로운 지역 간 격차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³⁷ 이처럼 나가노 올림픽 개최 이후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

3) 환경적 측면

환경경제학자인 미야모토 겐이치(宮本憲一)는 건설업을 기반으로 하는 외래형 개발모델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전후 일본 재정의 특징은 사회간접자본을 충실하게 만드는 기조에 따라 공공투자 비중이 높았다. 그런데 일본의 공공투자는 하수도나 주택, 공원, 복지, 교육 등의 생활기반에의 투자보다는 도로 건설과 같은 민간기업의 생산 기반을 충실히 하는데 재정을 우선적으로 배정했다. 재정상의 우대정책에 따라 자동차가 증가하고, 자동차 관련세금(약 5조 엔)이 증가하면 도로를 건설하고, 그러면 다시 자동차가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에 따라 건설업이 비정상적으로 발전했다.

또한 대도시에 본사가 있는 공장 등의 사업소를 지역에 유치하여 그 경제 효과에 의존해 지역의 발전을 계획하는 외래형 개발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많은 지역이 공장 유치에 실패했으며, 성공했더라도 이윤이나 법인세는

36 김은혜, 「삿포로올림픽과 도시재생: 고도성장기와 저성장기의 전략」,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19, 2018, 121~152쪽.

37 James Ferguson, *Global Shadows: Africa in the Neoliberal World Order*, Duke University Press, 2006.

대도시, 특히 도쿄로 흡수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참가라는 민주주의적 절차 역시 생략됐다. 게다가 건설업의 추진은 환경파괴나 공해의 원인이 되었다.³⁸

미야모토 겐이치의 이론적 도식을 대입해 보면, 올림픽을 통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는 외래형 개발에 속한다. 나가노 지역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고규격 교통망을 건설하고, 경기시설을 정비 및 신축하는 데 사용한 비용은 대략 1조 3,627억 엔에 달했다. 또한, 거대 스포츠 시설을 건축하는 데는 ‘고도의 전문기술과 실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역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기회는 많지 않았고, 대도시권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에 시공의뢰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³⁹ 결국 건설에 따르는 막대한 이익은 결국 중앙으로 흡수되어 버렸다.

또한 나가노 올림픽을 추진하면서 많은 환경파괴 역시 진행됐다. 1972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던 삿포로에서는 에니와 국립공원의 가문비나무 숲을 베어 내고 활강 슬로프를 만든 뒤 “올림픽에 의한 자연파괴”라고 비난을 받았으며 복원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나가노 올림픽 조직위(NAOC)에서 역시 전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가노 조직위에서는 원래 활강 경기장으로 이와스게야마(岩菅山) 부근을 활용하고자 했지만 광범위한 벌채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여건에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했다. 이에 조직위에서는 기존 스키장 시설이 있는 하쿠마의 핫포네(八方尾根) 리조트를 활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시범경기를 해 본 국제스키연맹(FIS)은 코스가 짧다며 출발지점을 해발 1,680m에서 1,800m로 높이라고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자연 파괴를 우려했고 조직위에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고도를 높이면 코스 일부가 중부산악국립공원의 제1종 특별지역을 가로지르게 되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어기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조직위와 스키연맹 사이

38 미야모토 겐이치, 「토건국가를 넘어 대체적(代替的) 지역 개발과 일본의 경험」, 『공간과 사회』, 2009, 126~138쪽.

39 等々力賢治, 「長野冬季オリンピックにみる巨大地域開発: その特徴と問題点」, 202~204쪽.

의 공방은 5년 넘게 이어졌으며,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스키연맹에서는 대회를 철회하거나 활강경기만 다른 나라에서 개최하겠다고 조직위를 압박했다. 결국 대회 개막 두 달을 앞두고 출발지점 고도를 85m 올린 1,765m로 하되, 귀퉁이를 살짝 넘어서는 보호구역은 점프로 통과하도록 하고 눈 표면을 굳히는 화학물질은 쓰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⁴⁰

하지만, 나가노 올림픽 역시 환경파괴 문제에서 비껴갈 수 없었다. 나가노 올림픽 당시 베어진 나무만 12만 그루, 깎아 낸 흙만 240만 m³에 이르렀다. 점프 시설물이 설치된 하쿠바 마을의 나비 서식지에는 나비의 먹이가 되는 식물 군락이 파괴됐다. 또한 하쿠바 점프 경기장은 본디 논과 시냇가가 있었던 곳에 13m 정도 흙을 덮어서 지음에 따라 비가 오면 범람의 위험이 커졌다. 게다가 이즈나 고원의 프리스타일 스키 경기장은 본래 토사가 약해서 산사태가 잘 일어나는 지역인데도 경기장을 지어 토사 붕괴 위험은 커졌으며, 야마노우치마치와 시가고원에는 대규모 교량과 터널 등이 건설되면서 멸종 위기 서식지가 파괴됐다.⁴¹ 이러한 경험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올림픽과 같은 외래주도형 개발의 방향과 추진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3. 나가노 올림픽과 지역주민들의 다층적 국제화 경험

1) 올림픽 개막식에 투영된 자기 오리엔탈리즘(self orientalism)

일본에서 올림픽 TV 중계는 1964년 도쿄 올림픽을 흑백화면으로 송출하며 시작했다. 전 세계 대상 올림픽 TV 중계는, 이후 1970년대와 1980년대

40 「1998年長野オリンピックの滑降競技場設営問題」(최종 검색일: 2020. 4. 30.). <https://ja.wikipedia.org/wiki/1998年長野オリンピックの滑降競技場設営問題>; 「한겨레 사설, 칼럼 나가노 겨울올림픽에서 배울 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38387.html>(최종 검색일: 2020. 4. 30.).

41 「나가노를 통해 평창의 길을 묻다 ①-예산 전문가 예자와 마사오」,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23964>(최종 검색일: 2020. 1. 23.).

올림픽 중계권의 가격 상승, 올림픽 주최국 간의 경쟁 등으로 점점 더 자국의 파워를 과시하는 대형 미디어 스펙터클로 변했다. 특히, 올림픽 개막식은 TV 산업과 올림픽 스폰서들의 대대적 투자를 정당화하는 주요 TV 이벤트가 되고 있다.⁴²

나가노 올림픽의 경우, 대회 운영비의 약 40%가 보도비 및 정보통신비에 소요됐다. 나가노 올림픽에서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TV 중계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이동 카메라 및 공중카메라의 연출을 통해 장대한 영상을 제공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TV를 통해 나가노 동계 올림픽을 보기 때문에, 텔레비전의 질을 높이는 경비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라는 나가노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의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상당한 비용을 TV 중계에 투자하여 “텔레비전 올림픽”이라고도 불렸다.⁴³

이처럼 큰 비용을 들여 전 세계의 시청자를 사로잡기 위해 고안된 나가노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일본 문화의 전통 및 지역적 특수성과 더불어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사회의 리더(조정자)로서의 일본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막식 전반부에는 나가노 지역의 전통풍습인 온바시라(御柱)⁴⁴와 전통의상, 토속신앙에 기초한 도조신앙, 일본의 전통문화(스모) 등 자연의 웅장함보다는 전통문화(풍습), 문화적, 역사적 유산을 강조하는 영상표현물이 많이 등장했다. 특히 온바시라 의식에서 1,000여 명의 주민들이 나무 기둥을 세우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 스모 선수들이 서열화된 계급에 따라 입장하고 늘어서는 모습 등은 일본의 위계적, 수직적 집단문화를 드러내고 있다.⁴⁵

후반부에서는 세계적 명성을 얻은 일본인 지휘자 오자와 세이지(小澤征

42 이종수, 「올림픽 개막식과 국가 정체성의 구성: 나가노, 시드니, 베이징, 밴쿠버 올림픽 문화공연 중계 비교분석」, 『한국방송학보』, 2011, 383~384쪽.

43 等々力賢治, 「長野冬季オリンピックにみる巨大地域開発: その特徴と問題点」, 196~197쪽.

44 나가노현 스와(諏訪)지방의 스와타이샤(諏訪大社)가 주관하는 가장 큰 축제로 범의 해와 원숭이의 해에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제사로, 나가노현 지정 무형문화제이다. <https://ja.wikipedia.org/wiki/御柱祭> (최종 검색일: 2020. 4. 24.).

45 이종수, 「올림픽 개막식과 국가 정체성의 구성: 나가노, 시드니, 베이징, 밴쿠버 올림픽 문화공연 중계 비교분석」, 395~405쪽.

爾)의 지휘에 맞춰 세계 각국의 합창단이 부르는 베토벤의 ‘환희의 교향곡’ 장면 및 하와이 출신 스모 선수가 등장하는 장면 등은 동양과 서양문화, 지역화와 세계화의 가치를 동시에 구현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공식적 의식에서 남성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핵심적 인물로 등장한 이토 미도리(伊藤みどり) 선수⁴⁶가 나비부인을 연상시키는 의상으로 성화 봉송에 참여함으로써 전통적인 여성상이 강조됐다.⁴⁷

나가노 올림픽은 세계의 관중에게 일본의 국가 정체성을 선언하고 발신하는 장으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일본 국내의 자국민들을 향해 일본의 국가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내부의 단결을 공고히 하려는 장치로서도 활용되는 측면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가노 올림픽의 개막식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배적 구미문화의 시선을 의식하여 지나치게 이국적인(exotic) 이미지를 제시하는 자기 오리엔탈리즘(self orientalism)적 경향과 동양과 대립되는 서양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옥시덴탈리즘(occidentalism)이 혼재되어 있다. 나가노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궁전 예복을 연상시키는 고대 풍의 복장을 걸친 용적(龍笛) 및 생황(笙) 연주자가 기미가요(君が代)를 연주했는데, 이는 마치 올림픽의 시원을 고대 그리스에서 찾는 것처럼 기미가요를 현대 일본의 시원적 전통으로 재발명하는 것이다. 일본의 국기로 불리는 스모 퍼포먼스를 활용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모의 일인자인 요코즈나(横綱)가 씨름판에 입장하여 시작하려는 순간, 천황이 입장하면서 모든 움직임이 중지되는 퍼포먼스는 실질적으로 일본을 다스리는 지배자가 누구인지와 같은 헤게모니를 암묵적으로 재현하는 장면이기도 하다.⁴⁸

또한 개막식에서는 온바시라와 같은 향토사회의 축제를 배후에 배치함

46 일본의 전 여자 싱글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 아시아 선수 최초로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땀다. 당시 일본계 미국인인 크리스티 야마구치(Kristi Yamaguchi)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며 일본에 엄청난 피겨 스케이팅 붐을 일으킨 상징적 인물이다. <https://namu.wiki/w/이토%20미도리>(최종 검색일: 2020. 4. 25.).

47 이종수, 「올림픽 개막식과 국가 정체성의 구성: 나가노, 시드니, 베이징, 밴쿠버 올림픽 문화공연 중계 비교분석」, 395~405쪽.

48 高橋雄一郎, 「国民国家の文化的パフォーマンスとしての長野オリンピック開会式」, 『専修経済学論集』, 1999, 86~92쪽.

으로써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신앙과 지역에 대한 애정, 더 나아가 일본 국민으로서 의식을 고양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다카하시 유이치로는 분석한다. 지역을 수호하는 마쓰리(祭り)의 후면에는 국가신도를 배치하고 있으며, 일상적 사회조직인 가족의 배경에는 천황을 가장으로 하는 일본이 있다는 사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나가노 올림픽 개회식에서 실시된 연출은 텔레비전 시청자 및 관객들에게 집단적 기억을 구축하여, 일본국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재생산하고자 하는 시도다. 향토애를 애국심으로 전환해 내셔널리즘을 자생적·자발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⁴⁹

이처럼 올림픽 개막식은 나가노라는 지역 고유의 독자성을 세계에 알리기보다는 ‘일본’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구축하는 문화적 퍼포먼스로서 활용됐다. 이 과정에서 나가노라는 지역은 국가 정체성의 기반인 ‘그립고도 친밀한 전형적인 후루사토(古里)’로 재현됐다. 그리하여 지역 고유의 특성이나 지역 내부의 이질성은 사실상 드러날 수 없었다. 이를 통해 주목해 봐야 할 지점은 1970년대부터 지역을 “잃어버린 일본을 발견하고 추억하며, 사회·심리적 불안감을 달래는 장소”로서 재현하는 시도는 서구적 시선을 체화한 일본인들의 시선 속에서 탄생한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점일 것이다. 즉, 1980년대 및 1990년대 ‘고향 만들기’ 문화 담론이 일본에서 성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중양의 시선으로 재현된 지방’이라는 이중적 구도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 환경을 따라잡기 위한 일본 전체의 노력으로서의 국제화”⁵⁰ 역시 그 배경요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즉, ‘후루사토’로서 채택된 지역의 이미지는 서구적 시선으로 보았을 때 가장 이질적인 일본적 속성이 선별됐다는 점에서 자기 오리엔탈리즘(self orientalism)⁵¹의 결과물이

49 高橋雄一郎, 「国民国家の文化的パフォーマンスとしての長野オリンピック開会式」, 92~93쪽.

50 박경민, 「일본의 국제화 정책과 지역의 ‘국제화하기’: 정책 인류학적 관점」, 『비교문화연구』 25(2), 2019, 55쪽.

51 Dorinne Kondo, *About Face: Performing Race in Fashion and Theater*, New York and London: Rotledge, 1997, p. 19.

기도 하다.

2) 올림픽 반대운동의 전개와 국제적 공조활동

‘올림픽이 필요 없는 사람들의 모임’(オリンピック いらない ネットワーク)을 만들어서 활동했던 에자와 마사오(江沢雅雄) 씨는 베틀로 머플러를 만들어 염색하는 일을 하는 평범한 나가노시 시민이었다. 도쿄에서 살다가, 25살 당시, 장애인 시설을 경영하는 선배를 돕기 위해 나가노에 왔다가 정착한 지 2020년을 기준으로 이제 45년이 흘렀다.

그는 단 2주간의 올림픽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 싫어 올림픽을 반대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더 큰 문제라고 느꼈다. 에자와 씨에 따르면, 올림픽을 개최할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도쿄와 접근성이 좋아지면 관광업계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와 관련해 행정에 정보를 청구했지만, 제대로 된 답을 받지 못했다. 나가노 현의회와 시의회에서는 올림픽 개최와 관련해서 “전원 찬성”으로 결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올림픽으로 인해 발생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조차 어려운 분위기였다.

게다가 올림픽을 치르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이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일도 많았다. 올림픽 유치결의 이후 1988년 6월 국내 후보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가노현민의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 나가노 의회에서는 서명운동 및 기부금 모집 운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나가노현 215만 명 가운데 총 183만 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수를 채우기 위해서 직장 및 지역에서 중복으로 기재되는 경우도 많았고, 학교에서 수업 중에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이 친척 이름을 써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직장 내지 지역사회 조나이카이(町内会) 조직도 반강제적으로 동원되곤 했다.⁵²

에자와 씨의 부인이자 나가노현 출신인 노리코(紀子) 씨는 “올림픽은 필

52 等々力賢治, 「長野冬季オリンピックにみる巨大地域開発: その特徴と問題点」, 204쪽.

요 없다”는 공약을 내걸고 1989년 나가노시 시장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지역의 쟁쟁한 자민당 후보와 달리 선거자금도 부족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부족하지만 “단 50명에 불과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결과적으로 총 유권자의 11%인 1만 5,406표를 얻어,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올림픽을 반대하는 자신들을 향해 “국민이 아니다.” “가난해서 반대하는 것이다.” “나가노 출신이 아니라 반대하는 것이다.”라는 등의 근거 없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그리스도교도인지 여부를 색출하기 위해 후미에(踏絵)를 만든 것처럼, 올림픽을 찬성하지 않으면 국민이 아니라는 식의 사상검증”이 이뤄졌다고 예자와 씨는 당시의 분위기를 술회했다.

또한, 예자와 씨는 올림픽이 사회적 약자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패럴림픽을 개최했지만, 정작 올림픽 대회장에 장애인들을 배려한 리프트 설치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리프트가 달린 버스도 한 대밖에 운행되지 않았다. 장애인 인권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올림픽 개최에 소요되는 막대한 돈으로 리프트가 달린 버스나 노스톱 버스를 마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예자와 씨는 생각했다. 이처럼, 나가노 조직위에서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초청하는 등 평화의 거점으로 나가노 올림픽을 포장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배제와 차별의 논리가 작동했다.

무엇보다 예자와 씨 입장에서 올림픽은 국민의 통합 및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홈리스를 축출하는 파시즘적 이벤트에 지나지 않았다. 올림픽으로 나가노를 국제화한다는 게 조직위가 내건 슬로건이었지만, 경기시설 및 신칸센 건설에 동원됐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400명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추방됐다. 이처럼 조직위에서 내건 “국제화”라는 슬로건이 사실상 얼마나 형식적인 강령에 지나지 않은가를 예자와 씨는 비판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자와 씨 역시 올림픽 반대 운동을 통해 나가노 지역의 문제를 “국제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그는 국제적 연대를 통해 올림픽을 반대하는 운동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동력

을 찾을 수 있었다. 예자와 씨는 올림픽 반대운동을 통해 “적어도 나 자신은 국제화”되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환경단체를 비롯하여 각종 미디어뿐 아니라 올림픽과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해 독일의 국영방송에서 방문을 했고, 파푸아뉴기니 연구소 연구진을 비롯하여 영국의 저널리스트까지 취재를 위해 자신의 집을 방문했노라고 그는 설명했다. 또한 예자와 씨는 2018년 평창 올림픽이 개최되던 당시 한국의 환경단체 시민들과 연대하여 한국에 방문해서 나가노 올림픽의 경험을 적극 알리고, 가리왕숲에 알파인 경기장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지지하기도 했다. 이처럼 예자와 씨 역시 올림픽이라는 메가 이벤트를 통해 변화를 경험했다. 그는 올림픽 반대운동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글로벌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국제적 공조활동을 통해 반대운동을 이어 나갈 수 있었다.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고, 올림픽이 지역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예자와 씨의 실천은 나가노 지역 내부에 존재하는 이질성을 드러내는 시도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올림픽이 ‘일본’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고양하려는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점을 간파하고 그 과정에 내재한 폭력과 배제의 문제를 가시화하는 실천으로서의 의미 역시 갖고 있다. 올림픽에 대한 예자와 씨의 비판적 대응과 실천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공조활동을 통해 지속 및 확산될 수 있었다.

3) ‘한 학교, 한 국가’ 운동을 통한 국제적 교류 활동

나가노 올림픽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는 데 있어 많은 연구들은 무형의 유산(legacy), 즉 레거시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기시설 및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유형의 레거시라고 정의한다면, 지역 활성화 효과, 환경정비 효과, 이미지 업 효과, 지역산업 진흥 효과, 지역 아이덴티티의 확립, 사회교육 효과, 인재·노하우의 육성 효과, 국제교류 효과 등은 무형의 레거시로 분류된다.⁵³

53 도키 히로시, 「스포츠와 지역진흥: 나가노 동계올림픽의 경우」, 704~705쪽.

나가노 올림픽이 남긴 대표적인 무형의 레거시 가운데 하나는 한 학교·한 국가 운동(一校一國運動)이 있다. 나가노 올림픽이 결정되던 당시에 나가노 교육계에서도 국제화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마침 히로시마에서 아시아 대회를 개최하던 당시 지구 공민관과 대회에 참여하는 국가와 연계했던 활동을 참고하였다. 그리하여 나가노 시내 초중교 70여 개 학교가 올림픽 참가국과 국제 교류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⁵⁴ 현재까지도 10개교 정도는 직접 교류를 이어 나가고 있으며, 이후의 올림픽(시드니, 솔트레이크 올림픽)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지금은 IOC의 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⁵⁵

다른 한편으로 한 학교·한 국가 운동은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참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올림픽을 위해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나가노 올림픽 유치 평가를 위해 IOC 위원들이 나가노현에 방문할 당시, 나가노 시내 초등학생들을 동원하여 환영회를 열거나, 올림픽 대회에 학생들을 동원하여 관중석을 채우는 등의 행동은 전혀 교육적이지 않다는 비판은 교육계 내에서도 제시됐다. 한 학교·한 국가 운동도 교사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들 뿐 아니라 외부의 압력에 의해 행사되는 일회적 전시성 이벤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됐다.⁵⁶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 학교·한 국가 운동”의 효과를 탐색한 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활동들은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살아왔던 익숙한 공간을 세계에 알리는 과정을 통해 ‘일본은 무엇인가?’, ‘지역 또는 나가노는 무엇인가?’와 같이 국제적 관점에서 지역의 문제를 다시금 탐색하는 계기

54 日本語教育165号ワーキンググループ, 「長野オリンピックにおける「一校一國運動」, 2020年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の開催と日本語教育」, 『日本語教育』, 2016, 50~51쪽.

55 이상대·지우석·이수진·박신영,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연계한 지역상생 발전방안」, 25~26쪽.

56 岡崎勝, 「オリンピック「動員」とどう対抗するのか: 学校現場から特集 スポーツ「動員」という政治イベント-五輪, 国体, W杯」, 『月刊フォーラム』 9(5), 1997, 45~49쪽.

가 되었다.⁵⁷ 또한, 나가노시의 도쿠마 초등학교(徳間小学校)의 사례와 같이 “한 학교·한 국가 운동”이 일회적 이벤트가 아니라 학교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경우도 있다. 도쿠마 초등학교의 교류 상대국은 루마니아였다. 학교 측은 대사관을 통해 교류 의사를 전달했고, 서로 상대국가의 언어를 배우도록 교재를 전달하고, 초등학교생들이 그린 그림 및 손편지를 교환하는 등의 통상적 교류 활동으로 시작했다. 이후에 루마니아에 에이즈에 걸린 아동 환자들을 돕는 단체인 AAA(Act Against AIDS)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회(PTA)가 중심이 되어 자선마자를 열거나 에이즈에 걸린 아동을 일본에 초대하는 등의 국제교류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다. 다카키 아키타에 따르면, 도쿠마 초등학교의 사례는 단순히 국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여 실천에 옮겼다는 점에서 국제화 교육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⁵⁸

“한 학교·한 국가 운동”을 통해 시작한 국제교류 활동은 1980년 후반부터 “해외에서의 일본에 대한 이미지를 고취하고, 외국의 아이디어와 문화적 개방성을 아우르는 비즈니스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국제화 개념에 기반한 것이었다. 1989년 외교청서에서는 일본적 가치, 일본인론, 일본문화론에 기반을 둔 기존의 폐쇄적 국가 정체성에서 벗어나 세계 시민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으며, 이러한 국제화 정책 강령은 일본의 정책을 방향 짓는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해 왔다. 일본의 맥락에서 국제화는 “국가 간 상호작용을 증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국제 사회 질서로 편입하는 것, 혹은 다른 나라에 대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었다.⁵⁹ 도쿠마 초등학교의 사례에서 보듯이, 나가노 지역 아동 및 청소년들은 루마니아의

57 日本語教育165号ワーキンググループ, 「長野オリンピックにおける「一校一国運動」, 2020年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の開催と日本語教育」, 53쪽.

58 高木啓, 「遺産」としての「一校一国運動」: 長野市立徳間小学校の取り組みを中心に, 『「オリンピックの遺産」の社会学』, 青弓社, 2013, 139~147쪽.

59 박경민, 「일본의 국제화 정책과 지역의 '국제화하기': 정책 인류학적 관점」, 58~59쪽.

에이즈 환자를 돕는 활동이나 난민체험캠프 등과 활동을 통해 ‘세계 시민으로서의 일본인’이라는 감각을 고양하고 있었다.

4) 자원봉사 활동과 지역의 국제화

자원봉사조직 역시 나가노 올림픽의 주된 무형의 레거시로 꼽힌다. <표 1>에서 정리했듯이 나가노 올림픽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로 활동한 인원은 3만 2,579명이며, 이 밖에도 문화교류에 1만 5,489명이 참가하여 대회를 지탱했다. 나가노 대회 자원봉사 조직들은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에서 자원봉사조직으로 활동했던 조직들이 <팀 94>로 활동했던 유산을 이어 받아 <M-wave 친구 모임>과 <하쿠바 팀 98>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하쿠바 팀 98>의 경우 대회 종료 후 30여 년 간 자원봉사자 활동을 이어 나갔다. <하쿠바 팀 98>은 하쿠바 지역에서 료칸(旅館)을 운영하는 와타나베 요시코(渡辺義子) 씨 부부가 중심이 되어 결성됐다.

도쿄에서 살았던 와타나베 씨의 남편은 오래전부터 산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희망을 품고 젊었을 때부터 하쿠바 지역으로 이주할 준비를 해왔다. 결국 1983년에 하쿠바무라로 이주를 해서 지금까지 숙박업을 하며 살고 있다. 와타나베 씨 부부가 하쿠바 지역에 이주했을 무렵만 하더라도 마을에서 외국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스키 인구가 점차 감소했다. 그래서 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부흥을 시키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하쿠바에서 그런 큰 경기를 할 수 있을까,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처음에는 올림픽을 반대했다. 하지만 하쿠바 지역의 경우 원래 쓰던 시설을 거의 사용하고, 점프대도 산을 깎지 않고 원래의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으로 건설되는 것을 보고 와타나베 씨 부부를 비롯하여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딸까지 함께 나가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모집하는 자원봉사에 응모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와타나베 씨 부부는 하쿠바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를 하게 된 사람들을 격려하는 파티를 여는 장소로 자신들의 료칸을 제공했다. 올림픽이 끝나고 해산하는 모임 역시 와타나베 씨 부부의 료칸에서 진행했는데, 이대로 헤어

지는 게 아쉽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마침 그해 8월에 하쿠바 점프대에서 국제 경기가 열리게 되어 국제 대회를 지원하는 자원봉사도 할 겸 자원봉사자들의 친목회도 정기적으로 열 겸 〈하쿠바 팀 98〉을 결성했다. 당시 참여했던 사람들은 총 240여 명이었고, 대부분 나가노현 주민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들이었다.

〈하쿠바 팀 98〉모임에서는 국제 행사를 돕는 활동뿐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을 함께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다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삼림을 정비해 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야산 정비 및 청소와 같은 그린 패트롤(green patrol) 활동을 수행했다.⁶⁰ 사실상 활동의 구심점이었던 와타나베 씨가 3년 전 사망할 때까지 〈하쿠바 팀 98〉활동은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구성원들 역시 고령자가 되었고, 다른 활동으로 인해 바빠진 사람들도 있어 현재 멤버는 3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나가노 지역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와타나베 씨 부부의 이러한 활동을 “돈도 되지 않는데 왜 저런 일을 하나.” 하며 의아해한다. 하지만, 지역주민들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활동이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고 와타나베 씨는 생각하고 있다. 특히, 올림픽을 치른 이후 지역에 외국인 손님뿐 아니라 외국인 숙박업 경영자의 비중은 더욱 크게 늘고 있다. 와타나베 씨가 사는 와다노구 지역의 경우 구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다. 올림픽을 계기로 하쿠바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와타나베 씨 본인도 료칸을 예약하기 위해 연락하는 미국인, 프랑스인, 호주인들을 응대하기 위해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부해야만 했다.

나가노 지역 주민들은 외부인들을 “요소모노”(よそもの)라 부르며 다소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의 경우 자동차 면허도 없이 운전한다거나 취해서 소리를 지른다는가, 쓰레기를 버리는 습관이 달라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외부인 관광객들은 사

60 石坂友司·徐禎完, 「長野オリンピックが生み出した遺産」, 180쪽.

실상 지역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을 향해 취하는 자세도 변화하고 있음을 와타나베 씨는 느낀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안내하거나, 외국인 주민들과 협의를 하여 공동의 규칙을 만들어 가는 노력을 행정에서도 해 나가고 있다. 지역주민들 역시 올림픽을 계기로 다양한 외국인들을 접하며, 그들 역시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외국인들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바뀌고 있다. 외국어를 할 줄은 모르더라도 적어도 인사말을 배운다거나 친절하게 응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와타나베 씨는 외국인 소유의 숙박시설이 많아지는 경우 건물 사용료나 지대는 지역의 수익으로 남지만, 그 외의 수익은 해외로 유출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스키를 타는 인구는 점점 줄고 있고, 여전히 관광 수입에 의존한 지역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외국인 관광객은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워 줄 중요한 존재들이다. 따라서 지역의 관광자원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적극 홍보하면서도 관광으로 인한 수익이 지역으로 환원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았다.

와타나베 씨는 올림픽이 지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여전히 올림픽 관련 시설 유지비를 지역주민들이 부담해야 하고, 관광자원으로서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칸센의 건설과 도로의 정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단기간에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이 하쿠마 지역을 찾는 이유는 장엄한 산맥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등의 관광자원의 힘 때문이라고 와타나베 씨는 생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나가노 올림픽은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의 발전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 나가노에서 국제적 행사를 개최하는 사건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해석을 촉구했다. 일부 주민들은 상업화된 올림픽과 내셔널리즘이 결탁한 올림픽을 반대하고 그 문제점을 비판하며 올림픽 반

대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다른 주민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이고 이를 지역 나름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나가노 지역주민들에게 올림픽은 지역에서의 자신들의 삶을 더욱 넓은 사회문화, 정치·경제적 힘과 연결하려는 혹은 연결하기를 거부하는 다양한 실천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글로벌 차원의 문제로 확장하여 사고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었다.

4. 나가며

본 연구에서는 1998년 동계 올림픽 유치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꾀했던 나가노 동계 올림픽의 사례를 중심으로 나가노현의 지역성 구성에 올림픽 메가 이벤트가 남긴 흔적을 고찰해 보았다. 그리하여 메가 이벤트를 통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가 지역민들의 삶에 미친 포괄적 영향에 대해 고찰했다.

나가노 올림픽이 지역사회에 미친 경제적 효과 및 영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흑자 올림픽”이라는 개최 당시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크게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특히, 올림픽 관련 시설이 집중되어 있던 나가노시의 경우 올림픽을 계기로 각종 국제회의 및 컨벤션을 개최하는 등 국제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꾀했지만, 이는 계획만큼 성공적이지 않았다. 게다가 올림픽 관련 시설의 유지 및 보수에 따른 비용도 지역주민들이 감당해야 했다.

공간적 측면에서 보면, 나가노 올림픽은 지역 간 격차를 확대했다. 하쿠바 지역의 경우, 올림픽을 계기로 나가노시와 연결하는 도로를 정비하고, 점프대를 건설함으로써 겨울 리조트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자 했다. 하지만 나가노시와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하쿠바 지역에서 숙박하는 관광객의 수는 줄어들었고 당일치기로 들렀다 가는 손님들이 증가했다. 하지만, 모든 시정촌이 올림픽 불황을 겪었던 것은 아니다. 가루이자와 마치의 경우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접근이 쉬워지면서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 또한 가루이자와 마치를 “일본 컬링 성지”로 만드는 목표를 세워 올림픽 레거시를 계승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로서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나가노 시 역시 인근 지역 상권을 흡수하여 중소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 지역주민들은 외래형 발전 방식이 자본과 선택적으로 연결된 지역에만 그 결실이 집중됨으로써 새로운 지역 간 위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나가노 지역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외래형 발전 모델과 세계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다. 나가노 올림픽 개최 이후 환경파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 활동이 활발해진 이유 역시 외래형 개발의 지향점과 전개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한 결과이자, 지역의 문제를 글로벌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연대 활동을 펼쳐 가는 과정의 소산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나가노 올림픽 개막식 및 올림픽 준비과정에서 투영된 올림픽의 파시즘적 요소에 대해 비판하며 나가노를 ‘그립고도 친밀한 전형적인 고향’으로만 소비하고, 단일한 국민성을 창출하려는 국가 만들기 프로젝트에 균열을 가하는 시도들 역시 이뤄졌다.

이처럼 나가노 지역의 사례는, 현대 일본 사회에서 지역성이 구성되는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처해 있는 글로벌한 맥락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함을 잘 보여 준다. 탈영토화되고 이산적이며 초국가적인 특성을 띠기 시작한 세계 내에서 지역성을 생산하는 일은 점점 투쟁과 같은 것이 되고 있다고 인류학자 아르준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는 지적한 바 있다.⁶¹ 또한, 지역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투쟁은 매우 다차원적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외부의 자본과 연결을 피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반면, 환경을 파괴하며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세계화에 대항하여 내발적 발전 모델을 구축하려는 시도 역시 진

61 아르준 아파두라이, 차원현·채호석·배개화 옮김, 『고삐 풀린 현대성』, 현실문화연구, 2004.

행되고 있다. 외국인들과의 상호작용을 늘려 나가며 다른 나라에 대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시민들이 증가하는 한편, 국제적 연대를 통해 올림픽 반대 운동을 지속해 나가는 흐름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나가노 지역 사례는 메가 이벤트를 유치할 통해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현대 일본의 지역사회가 직면하게 될 다차원적 도전들과 이에 대응하는 지역민들의 다양한 실천들을 관찰할 수 있는 흥미로운 연구지점이라 할 수 있겠다.

투고일자: 2020. 5. 18. | 심사완료일자: 2020. 6. 1. | 게재확정일자: 2020. 6. 16.